

독일, 포장폐기물 리사이클화 박차

연간 폐기물량 960만톤... 93년 폐차 및 94년 가전제품 재생 의무화

독일이 환경보호정책 일환으로 폐기물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독일은 연간 3200만톤의 가정폐기물 중 2200만톤을 매립처리하고 있는데, 포장폐기물이 용량 50%, 무게 30%를 차지한다.

이에따라 독일은 91년 6월 포장폐기물 규제령을 마련, 93년 1월부터 포장제품 판매업자가 판매한 포장재를 회수, 재이용하거나 재생·사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Deposit제는 판매업자가 유통시 용량 0.2ℓ 이상은 0.5DM, 1.5ℓ 이상은 1DM, 2kg 이상의 라텍스 페인트 용기는 2DM의 예치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Dual System은 유통업자·자재·포장·포장이용 소비자 메이커가 공동으로 조직한 회수·재생시스템으로 자금조성을 위해 DSD(Dual System Deutschland)를 설립했는데, Dual System은 포장폐기물만 자치단체 대신 처리·재생하는 제도로 인구 5800만명분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산업용 포장자재는 기업측에 회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폐차는 93년 12월31일까지 Net-work화된 회수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전기제품은 94년 1월1일부터 리사이클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2/12/15>